



[마켓] 유상호·김해준 등 장수 CEO 많은 증권가 "실적이 곧 연임" 12



[중소기업] 코웨이 지난해 사상최대 실적 올해도 물 흐르듯 성장? 14



고향 가는길

3000만명 대이동... 귀성길 15일, 귀경길은 16일 피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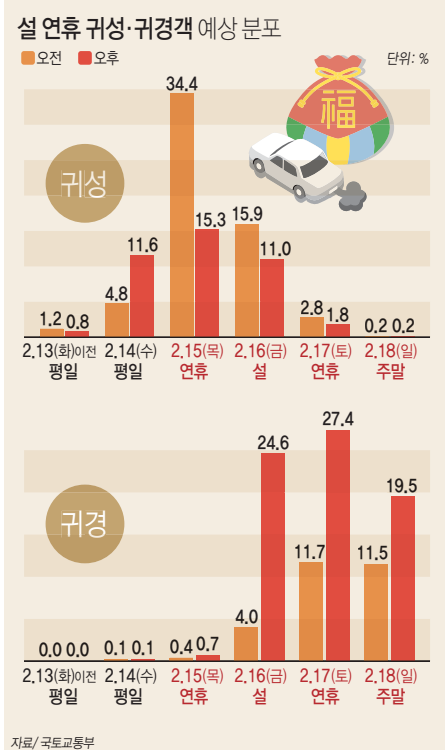
하루 평균 655만명 이동 예상 안전 위해 카메라 드론 운영도

고향가는 길은 연휴 첫날인 15일 오전에, 돌아오는 귀경길은 설 당일인 16일 오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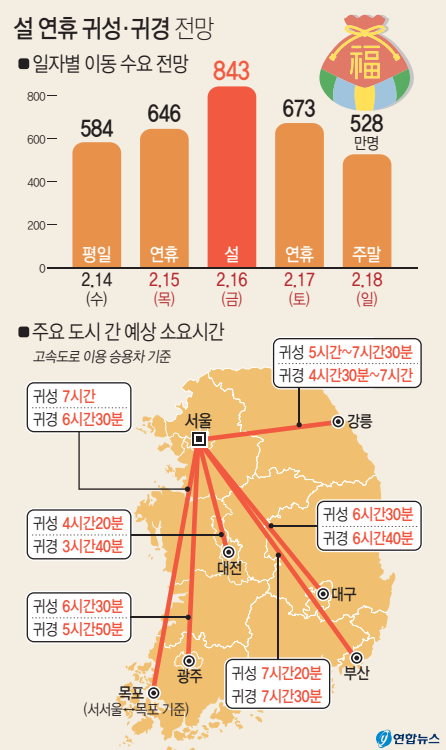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평균 소요시간은 통행료 면제 등 영향으로 지난해 설보다 최대 40분 증가해 ▲서울→부산 7시간 20분 ▲서울→광주 6시간 30분 ▲부산→서울 7시간 3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향을 받는 ▲서울→강릉 구간은 5시간~7시간 30분으로 지난해보다 1시간 50분~4시간 20분 증가하고 ▲강릉→서울은 4시간 30분~7시간으로 1시간 10분~3시간 40분 늘어날 전망이다.

특별교통대책기간인 설 연휴(14~18일) 기간 전체적으로는 총 3274만명, 하루 평균 65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80% 가량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하루 평균 424만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5일 0시부터 17일 24시 사이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해당된다. 고속도로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오는 14~18일 고속도로 경부선(한남대교 남단~신탄진)과 영동선(신갈JCT~여주JCT, 강릉JCT~대관령IC)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이는 평상시 주말(오전 7시~오후 9시) 버스전용차로제 운영 시간보다 4시간 연장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9~25일)이 겹치면서 영동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 관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위험요인을 없애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 교통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설 연휴 기간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10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경찰헬기 14대, 암행 순찰차 22대를 투입해 음주·난폭·보복 운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4~18일 5일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연우 인턴기자 yw964@metroseoul.co.kr

“차량 무상점검 받고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한국타이어 등 엔진·냉각수 등 장거리 운행 위한 점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 연휴를 맞아 서비스센터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타이어 마모와 차량 점검 부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전국 서비스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서비스'를 시행한다. 현대차는 전국 22개 서비스센터 및 1370개 블루핸즈, 기아차는 전국 18개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보레가 설 명절을 맞아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설 연휴 특별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현대·기아차는 서비스 기간 차량 정비를 위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배터리·냉각수·타이어 공기

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무상으로 점검한다. 각종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블루핸즈를 방문한 고객의 경우 차량관리 앱 마이카스토리를 설치한 후 점검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제시하면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검 후 유상 수리를 해야 할 경우 1회에 한해 1만원 공임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한국지엠과 쌍용차, 르노삼성도 오는 14~15일(하행선)과 16~17일(상행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총 9개소 18개 코너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들 업체는 냉각수, 브레이크, 배터리,

전구류,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하고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교환 등을 해준다. 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가까운 정비소를 안내하는 한편 인근 지역 고장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이어업계도 15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횡성·여주·마장·진영·동명·용인 휴게소 등지에서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상태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해준다. 정비 불량 올바른 타이어 사용·관리방법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양성운 기자 ysw@

설 맞이 이벤트 풍성... 귀성길 지루함 날려줄 게임은

게임업계 다양한 업데이트·이벤트 강화된 보상·아이템 획득 기회도

민족 최대 명절인 이번 설 연휴에는 총 3274만명이 이동해 하루 평균 655만 명이 대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꽉 막힌 고속도로는 곤욕일 수밖에 없다. 고향 가는 고속도로나 기차 안에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한 게임들로 지루함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

13일 게임업계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다양한 자사 게임에 다양한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마련해 이용자 눈길 끌기에 나섰다.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블레이드&소울'은 지난 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설 이벤트를 실시

한다. 이용자는 신규 이벤트 던전 '홍실의 연구실'의 일일 퀘스트 완료 보상, 300 PC방 포인트, 블소 공식 페이스북 덕담 이벤트 당첨 선물로 홍실의 답례품을 얻을 수 있다. 이용자가 홍실의 답례품을 열면 '홍분홍의 톨니'와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넷마블게임즈도 명절을 맞아 '모두의 마블' 등 자사 인기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이벤트를 열었다. 설날 맞이 대규모 업데이트를 실시한 모바일 보드게임 '모두의 마블'에서는 '뽕슬레이맵'인 신규 맵과 나와 비슷한 실력의 이용자와 매칭되는 '모두의랭킹'이 추가됐다. 캐기만 해도 다이아(게임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다이아 광산도 새로 선보였다.

NHN엔터테인먼트도 설날을 맞아 자

사 인기게임 8종의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바일 웹보드 게임인 '한게임 포커'와 '한게임 슷다M'은 14일부터 18일까지 피크타임 접속 이벤트를 진행한다. 퍼즐 게임인 '프렌즈팝'은 설날 한정판 5성 프렌즈 4종을 출시해 14일부터 7일간 '황금프로도의 웃음이 월드' 이벤트를 연다.

게임빌은 자사 대표 RPG 4종으로 프로모션을 연다. 최신작인 '로열블러드'에서는 18일까지 5·15·25·45 레벨 달성 시 선물을 지급하는 '레벨 달성 이벤트'를 실시한다.

웹젠도 게임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모바일게임 '뮤 오리진'은 18일까지 접속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호칭 북주머니' 등 강화된 보상을 선물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